

소련의 가스생산 현황

소련의 가스 생산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다. 소련은 80년대 들어 매년 목표치를 상회하여 가스생산을 하고 있는데, 87년 소련의 가스생산은 7천2백70억입방미터로 목표치보다 1백50억입방미터를 상회했으며, 88년 1/4분기중에는 목표치보다 55억입방미터 초과한 2천1백20억입방미터를 기록했다.

이와같은 가스생산호조는 ①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공급구조의 개편 및 가스생산의 적극 추진 ② 80년대 들어와 우렝고이 가스田으로부터 6개 주요 파이프라인이 早期에 건설됨으로써 서시베리아의 가스생산이 급속히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소련은 오는 90년대까지 계속적인 가스증산을 통해 석유존도를 낮추고 국내수요와 해외수출에 대처할 계획이다.

소련은 지속적인 가스증산을 위해 국내가스수요확대와 가스수출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소련의 가스수요는 80년 이후 총 62%가 증가했다. 87년의 경우 가스수요는 총 5천6백억입방미터로 1차에너지 소비중 37%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중 산업부문과 발전부문의 가스소비가 83%를 차지했다.

소련은 앞으로 계속 산업 및 발전부문의 연료를 석유에서 가스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며, 오는 2000년에는 발전용 석유소비를 피크였던 80년 소비량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소련의 가스수출은 80년 이후 40% 이상 증가했다. 지난 83년 Urengoi-Uzghorod간 파이프라인이 건설된 이후 급증하여 87년에는 3백82억입방미터에 이르렀다. 東歐지역에 대한 가스수출은 87년에 4백38억입방미터로 점차 석유수출을 대체하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련은 석유수입감소를 가스수입으로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對西方가스수출은 향후에도 증가가 예상된다. 오는 90년에 소련의 가스수출은 1천30억~1천4백억입방미터(西유럽 4백20억~6백80억입방미터·東유럽 5백50억~6백50억입방미터), 2000년에는 1천5백억입방미터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은 가스생산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우렝고이 가스田의 급속한 증산으로 회수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또 탐사시추활동을 소홀히 했다.

둘째, 유전에 비해 가스田이 보다 벽지에 위치해 있어 수송등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大口徑 가스파이프라인 부설과 용접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아직도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넷째, 가스 생산의 중심지역인 암부르그가스田은 북극권에 위치하여 수송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다섯째, 오는 90년대에 가면 가스田개발이 더욱 복잡함으로써 자연문제와 수출문제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란·이라크 戰爭피해(1980~1986)

(단위: 억달러)

	이란	이라크	計
軍事費 추가지출	243	330	573
民間財産 손실	259	82	341
固定資産 손실	765	434	1,199
石油收入 감소 기타	620	1,414	2,034
計	1,887	2,260	4,147

(註) 80년 불변가격기준

소련의 가스생산·수출추이

(10억입방미터)

	1984	1985	1986	1987
生産	587.0	643.0	686.0	727.0
輸出	66.4	69.2	80.7	82.0
- 東 유럽	35.8	37.5	42.4	43.8
- 西 유럽	30.6	31.7	38.3	38.2